

# 강진군, 장미 산업 경쟁력 높여 농가 소득 향상

### 전남농기원 전략 작목 육성 공모 선정 직거래 유통 확대 생산성 향상 도모 자동포장 시스템 접합목생산기술 도입 장미 재배 고품질화 농가수익 증대

강진군이 장미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나선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맞춤형 미래전략 작목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작목인 장미의 직거래 유통을 확대하고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 5억원

을 들여 장미 재배의 경제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포장 시스템, 최신 LED 보광기술 및 접합목생산기술 등을 도입해 농가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던 장미 묘목을 관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접합목 기술을 도입,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줄일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장미 특화단지를 위해 협력한 군과 농업인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최신 농업기술을 통한 현장 애로를 극복하고 다른 지역과

의 차별성을 한층 더 높여 주길 주문했다.

군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12월중 공시를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장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상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을 높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최진옥 개인전 '비상' 전시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은 전시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최진옥 개인전 '비상'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진옥 작가는 바람, 흙, 물 등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가득한 작품을 그려왔다. 이번 개인전 '비상'에서는 무한한 영감을 주고 바라만 봐도 행복한 자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강렬한 색감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시립도서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작가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느끼는 감정과 상상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제2회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 목포서 18일 첫 공연

전국의 연극인들이 함께하는 '제2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가 목포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연극협회 전남도지회가 주최·주관해 남교소극장에서 열리는 제2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연극 작품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공연은 오는 18일 초정작 '검정과무신'을 시작으로 19일 개막식과 함께 배우 최수종 씨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한 '여자만세2', 20일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1일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22일 '드림소년단'이 연달아 무대에 오르며 연극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개막작 '여자만세2'를 제외한 모든 공연은 1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여자만세2'는 개막식 당일(19일) 현장 발권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정통 연극뿐만 아니라 현대적 기술과 관객 참여 요소가 결합된 관객참여형 연극,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연극 아카데미와 아카어빙 전시 등을 통해 연극에 대해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난달 23~24일 운영한 'YES팜 영암을 배우다' 프로그램에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 영암군진로진학센터, '영암을 배우다'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난달 23~24일 영암서울농장에서 초등학교 4~6학년 25명이 참여하는 'YES 팜(Yeongam Edu Seoul Farm) 영암을 배우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하나인 지역 발전 전략 농생명산업 연계 교육

으로, 학생들의 농업 이해를 높이고, 체험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첫날인 23일 전통전래놀이, 지역농산물 도시락 피크닉, 김장 김치 담그기, 화덕피자 만들기 등에 나섰다.

이튿날인 24일에는 바나나 온실 탐방, 영암 깃대종 남생이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즐겼다.

영암군은 이번 서울농장 체험을 시작으로 농생명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2월에는 3D, 로봇 관련 미래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하림 대불초 4학년 학생은 "지역 농산물로 김치를 담그고, 화덕 피자를 만들어 재미있었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신안군,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 개최

### 주민참여형 국·내외 사례 공유

신안군은 지난달 27일 신안군청 공영장에서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이라는 주제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 및 군의원, 전남도의회 의원, 신안군·목포수협 조합장, 지역농협 조합장,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발전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안군민펀드 소개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국·

내외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자로 나선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재생에너지 펀드 플랫폼을 통해 2025년부터 운용되는 전국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무역대표부 요아킴 아룹 피셔(Joachim Arup Fischer) 대표는 주민이 50%의 지분을 소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덴마크 미들그룬덴 풍력단지를 소개하며 신안군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TUV SUD Korea 김지연 상무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를 설명하

며 이를 연계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개발이익의 공유제를 통해 군민의 34%가 햇빛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며 "햇빛·바람연금 이외에도 군민펀드를 통해 전 군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390MW)을 시범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 '청자만발' 특별전 연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청자만발 靑瓷滿發 : 개성 출토 고려청자'를 주제로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조형적 우수성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했을 미공개 개성 출토품 중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청자 기종과 문양의 유물들을 통해 고려시대 공예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전시는 특히 비색과 상감이 뛰어난 안형의 유물들로 엄선해 왕실의 품격을 보여주고 목부용(木芙蓉)과 흰초(萱草) 같은 새로운 고려청자 문양을 소개한다.

12월 전남도 유행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정인 청자양각해석류화문 '大平' 명국 와도 함께 전시해 다양한 청자의 용도도 소개한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대 최고의 기량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화려하면서도 절제미를 추구했던 고려 왕실 문화의 높은 수준과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오는 5일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막식을 갖고 2025년 3월 9일까지 열린다.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은 "고려시대 최대 소비처였던 개성에서 최대 생산지인 강진으로 이어지는 청자의 푸른빛 여정을 통해,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농수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성황 신안군, 3개월간 1억6천만원 매출

신안군이 11월 기준 전국 각지에서 열린 가을철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참가한 행사는 특산물 직거래 전국 최대 규모 중 하나인 '2024 추석 서울장터' 행사를 시작으로 마포구, 강남구, 은평구 등 자매결연 지역의 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 가을철 대표 농수산물 축제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2024 전남도 직거래 장터 큰잔치' 등이다.

신안군은 가을철에만 16회에 이르는 행사에 참가해 도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신안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높은 판매고를 올린 것.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을 개장했으며 이후 다양한 기획전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번만 아니라 오프라인 직거래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판로의 다양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에서는 단순히 직거래 행사를 마련하거나 연결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원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농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섬에서 출하되는 수산물의 물류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